



‘효버지’

이정호 광주FC 감독

전술 대결 승자는?

‘병수볼’

김병수 수원삼성 감독



광주FC, 오늘 수원삼성과 17R 최근 ‘4경기 무패’ 채조의 흐름 ‘전술가’ 감독 간 지략 대결 기대



‘효버지’ 이정호 광주 FC 감독이 다시 한번 빛 고을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할 준비를 마쳤다.

광주FC는 7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 구장에서 수원삼성과 하나원큐 K리그 1 2023 17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양 팀 사령탑의 지략 대결이다. ‘주도권 축구’를 펼치는 이정호 감독이 ‘병수볼’ 김병수 수원 삼성 감독과 첫 맞대결에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가 관심사다.

이 감독은 지난 3일 포항스틸러스와 16라운드 맞대결에서도 화려한 전술 싸움으로 관중석을 들뜨였다. 양 팀이 6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4-2 완승을 거뒀고, 최근 FA컵 포함 3연승과 함께 4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다.

이날 완승 직후 광주는 두 라운드 연속 베스트 팀에 선정됐다. 광주가 최근 완벽한 경기력으로 1부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질주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자타가 인정하는 것.

선수 개개인의 흐름 역시 상승세다. 두 현역은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과감한 공격 전개로 막강한 화력의 중심 역할을 했고,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대역전승의 주역이 됐다.

엄지성 역시 지난 3월 도하컵 U-22 전대회에서 부상을 당한 이후 길었던 골 침묵을 깨면서 다시 에이스의 면모를 회복했다. 엄지성은 최근 위협적인 스피드와 침투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본능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

광주 수비의 핵심인 ‘캡틴’ 안영규 역시 맹활약 중이다. 안영규는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2골 1어시스트)를 올리며 공격형 센터백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 티모와 함께 찰떡 호흡으로 철벽 수비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상대 수원삼성은 병수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개막 후 2개월간 무승의 늪에 빠지면서 최악인 12위까지 처진 수원은 결국 지난달 초 이병근 감독을 경질했고, 소방수로 김병수 감독을 낙점

했다.

김 감독은 부임 이후 한 달 만에 침묵하지 않는 수원삼성을 만들었다. 최근 리그 3연패에 빠져있던 하나 FA컵 포함 5경기에서 2승을 거뒀고, 7득점을 뽑아내며 무득점 경기가 없었다.

특히 팀의 정신적 지주인 플레이 코치 염기훈을 중심으로 박대원, 한호강, 고승범, 정승원 등 알토란 같은 자원들이 부활의 날갯짓을 펴고 있다. 이번 6월 클린스만호에 유일하게 승선한 이기재 역시 위협적이고 이상민과 손호준, 김주찬 등 U-22 자원들도 탄탄하다.

다만 최근 5경기 평균 1.4득점의 무난한 공격력에도 부상자 속출은 시름이다. 수원은 전진우와 아코스티가 최근 부상에

서 복귀했으나 물리자와 김경중 등이 여전히 부상으로 이탈해있고, 안병준은 부상을 안고 뛰고 있다.

양 팀의 올해 첫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1-0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광주는 올 시즌 개막전 수원과 격돌에서 아사니가 K리그 데뷔골을 신고하며 승격 팀 돌풍의 주춧돌을 놔다. 반면 수원은 첫 경기부터 꼬이며 올 시즌을 어렵게 풀어나가는 중이다.

이정호 감독은 이번 경기 역시 주도권 축구를 예고했다.

지난 포항전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다짐한 이 감독이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압박으로 홈 팬들에게 다시 한번 멋진 승부를 선보일지 기대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FC 정호연, 아시안게임 대표팀 발탁

15·19일 중국 대표팀과 평가전 “구단·나라 위해 필수 있어 영광”

프로축구 광주FC의 미드필더 정호연(23·사진)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U-24)에 발탁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5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비 중국 원정 친선경기에 나설 28인의 U-24 축구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광주FC에선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 중

인 정호연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 유스 출신으로 단국대를 거쳐 지난 시즌 광주에 편입된 정호연은 프로 첫 해부터 왕성한 활동량과 적극적인 수비, 안정된 경기 조율을 선보이며 36경기 1골 2도움을 기록, 팀의 주축선수로 발돋움했다.

정호연은 이번 시즌도 팀의 공수 연결 고리 역할을 완벽히 수행, 16경기에서 2도움을 기록 중이며 K리그 2·3월 영플레이어상까지 수상하는 등 리그내에서도 유망한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다.



또 리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올 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에게 꾸준한 부름을 받고 있다. 정호연은 “구단을 대표해, 나라를 위해 필수 있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광이다. 그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큰 자신감을 갖고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표팀은 오는 15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쳐 중국 아시안게임 대표팀과 평가전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규빈 기자

광주시청 근대5종 전용태 월드컵 파이널 혼성계주 금



한국 근대5종 대표팀 전용태(오른쪽·광주시청)와 김선우(경기도청)가 5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2023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파이널 혼성계주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시상대에서 기뻐하고 있다.

대한근대5종연맹 제공

QS+에도 웃지 못한 ‘특급 루키’

윤영철, 7이닝 2실점 KIA, SSG에 1-2 패



KIA타이거즈가 ‘특급 루키’ 윤영철의 프로 데뷔 후 최고투에도 웃지 못했다. KIA는 윤영철의 첫 퀄리티스타트 플러스 호투를 발판 삼아 투수진이 병살타 4개를 만들어내는 등 잔물 수비를 선보였으나 타선이 침묵하며 주중 홈 3연전을 패배로 출발했다.

KIA타이거즈는 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SSG랜더스와 시즌 6차전에서 1-2로 졌다. 이날 패배로 KIA는 시즌 23승 25패(승률 0.479)를 기록하며 5할 승률 복구에 실패했다.

윤영철은 7이닝 6피안타 1볼넷 2실점의 호투로 명품 투수전을 이끌었다. 프로 데뷔 후 최다 이닝을 소화했고, 퀄리티스타트 플러스(7이닝 이상·3자책점 이하)까지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과시했다.

윤영철은 1회초 1사 후 흔들리며 하제훈에 2타점 중전 적시타를 내주며 0-2로 끌려갔다. 하지만 곧바로 영점을 잡으며 2회부터 7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하며 선

발 임무를 마쳤다.

이준영(0.1이닝)~박준표(1이닝)~김유신(0.2이닝)으로 이어진 KIA 불펜진도 실점없이 잘 막았다.

투수진의 맹활약에도 타선은 집중력 부족을 드러냈다. 4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박찬호의 시즌 첫 홈런포로 한 점을 추격하는데 그쳤고, 7회말 기회는 김선빈이 런다운에 걸리며 무산됐다. 9회말에는 상대 마무리 서진용이 흔들리며 2사 만루까지 기회를 이어갔지만 류지혁이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나며 고개를 숙였다.

한규빈 기자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 스포츠 재능기부 ‘호응’

문화중 2·3학년 100명 대상 기본기·일대일 개인 레슨 등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이 문화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재능기부를 펼쳐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은 지난 5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3학년도 문화중학교 1학기 스포츠 체험학습’에 참여, 탁구 재능기부를 진행했다.

이번 재능기부는 스포츠(탁구, 골볼) 체험을 통한 올바른 장애인식을 위해 실시됐으며 문화중 2, 3학년 학생 100명이

참여, 오전과 오후 50명씩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 조재관 감독과 박호근 코치, 남기원·박진철·서수연·김영건·김정길·김성욱 선수 등 8명 전원은 이날 탁구 기본기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일대일 개인 레슨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선수들의 전문 강습을 통해 기본기를 배우고 일대일 레슨을 통해 알기 쉽게 지도를 받다 보니 탁구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며 “특히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도 지난달 21일 제37회 광주시민대상 체육대상 수상 소감에서 말한 “앞으로 적극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광주시민에게 받은 사랑을 시민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해 뿌듯함을 드러냈다.

조재관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 감독은 “이번 문화중학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이후 잠시 멈췄던 재능기부를 분기별로 꾸준히 진행해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이날 탁구 외에도 광주장애인골볼협회 김경자 감독(광주동구장애인체육회)을 초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스포츠 대표종목인 골볼 체험도 진행했다.

최동환 기자

김선우와 출전해 1359점 1위

‘한국 근대5종 간판스타’ 전용태(28·광주시청)가 2023시즌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파이널 혼성 계주에서 김선우(경기도청)와 함께 출전해 1359점을 획득, 팻 크리스토퍼-카스타우디 레베카(프랑스·1338점)를 21점 차로 여유있게 제치고 금빛 레이스를 함축했다.

전용태는 지난 5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2023시즌 UIPM 월드컵 파이널 마지막 경기인 혼성 계주에 김선우(경기도청)와 함께 출전해 1359점을 획득, 팻 크리스토퍼-카스타우디 레베카(프랑스·1338점)를 21점 차로 여유있게 제치고 금빛 레이스를 함축했다.

‘2022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듀오’ 전용태와 김선우는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펜싱랭킹라운드에서 29승으로 전체 1

위(254점), 수영 1위(310점), 승마 2위(293점)를 기록했다.

마지막 경기로 진행된 레이저런(사격+육상 복합)에서 선두로 출발한 전용태와 김선우는 무난하게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개인전 16위의 아쉬움을 털 전용태는 경기 후 UIPM 홈페이지를 통해 “집중력이 매우 높았다. 지면 상태가 조금 나빴고 달리기 코스에서 조심해야 했다”며 “김선우와 함께 혼성계주에서 다시 금메달을 따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우는 “개인전은 너무 아쉬웠지만, 전용태와 함께 혼성계주에서 다시 금메달을 따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